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 안 설 명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11.15 촉발지진 발표 이후
도의회에서 『지진피해 후속대책 마련 및
지역재건 조속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체계적이고 발 빠른 대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시민에게
큰 힘을 주고 계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모아주신 힘과 지혜는
헛되지 되지 않도록, 하나하나 챙겨서

포항을 재건하는 밑바탕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은
인건비와 같은 법정·의무적 경비와 함께
포항지진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시키면서
일자리 창출, 관광 활성화, 생활 SOC 구축을 비롯한
지역경제를 살리는 사업에 집중투자 했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 예산 편성의 바탕에는
정부의 추경편성 방향에 맞춘 집행을 통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지진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포항 피해주민의 삶을
도에서 앞 장 서서
회복시키자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무엇보다 초점을 둔 부분은
도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일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창업기업 일자리와 같이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에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또한 관광서비스시설 환경개선과
여행자센터 설치를 통한
관광인프라와 마케팅 사업에 집중해서
관광 산업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한편 포항지진 극복을 위해서
지진피해 공동주택 관리지원,
임시구호소 운영 지원 등 24개 사업에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쉬지 않는 노력으로
하나하나 채워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9조 4,642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일반회계 7,591억원,
특별회계는 594억원이 늘어난
총 8,185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분야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 자체수입은 지방소비세 2,566억원,
세외수입 520억원으로
3,086억원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을 비롯한 보전수입 등을
786억원 감액했습니다.

- 그리고 중앙지원 수입은
국고보조금 등 1,610억원과
지방교부세 3,681억원으로
총 5,291억원이 증액됐습니다.

□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 조정교부금, 지방교육세전출금 등을 포함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766억원,
- 포항 다목적구호소 건립과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지원사업 등의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94억원,
- 관광환경개선사업, 전국체전 시설개보수 등
‘문화·관광’ 분야에 723억원,
- 전기자동차 보급, 미세먼지차단 마스크 보급 등
‘환경보호’ 분야에 243억원,

- 아동수당 지급, 의료원 기능 보장 등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991억원,
- 농업기술원 토지보상,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170억원,
-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운전자금 이차보전 등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508억원,
- 지방도 사업, 국지도 개량 등
‘수송 및 교통’ 분야에 850억원,
- 낙후지역특별회계 전출금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684억원,
- 교육재정 교부금, 스마트공장 고도화사업 등
‘과학기술 및 교육’ 분야에 234억원,
- 그리고 기타 인건비 인상분 등에
28억원을 증액했습니다.

- 그리고 특별회계는
 - ‘의료급여 기금 운영’에 208억원,
 - ‘광역교통 시설’에 31억원,
 - ‘낙후지역 발전’에 28억원,
 - ‘발전소 지역자원 시설세’에 18억원,
 - ‘소방안전’에 309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기금과 관련해서는
 - ‘남북교류협력 기금’에 5억원,
 - ‘관광진흥 기금’에 100억원을
각각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지진으로 상처받은 포항은

국민적 관심과 국가의 지원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으며,

그동안 주춤했던 통합신공항은

금년 내로 최종부지를 선정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받아내면서

대구·경북에 유례없던 대역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상황이

결코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이지만,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환골탈태(換骨奪胎)’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순간 한 순간을 경북의 백년을 내다보는

전략과 실천으로 맞서 나간다면,

지금 이 순간은 우리에게 더 큰 발전의 기회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 예산이

포항지진피해 지원과 경북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4월 25일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